

# “마르크스주의 정답 아니지만 자본주의 해결책 찾는데 여전히 유효”

광주비엔날레 강연 철학자 지젝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로 꼽히는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류블라나대 선임 연구원)이 광주를 찾았다.

광주비엔날레 월례회 강연 시리즈 GB토크에 참여한 그는 21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21세기 마르크스를 다시 읽는다’를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수강자 모집이 시작되자마자 200명 정원이 마감됐고, 현장에서 대기표를 받고 입장을 기다리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또 강연 후 책에 사인을 받거나 기념촬영을 하는 이들도 많았다.

“매트릭스도 철학하기”, “자본주의에 희망은 있는가” 등을 펴낸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 슬라보예 지젝은 라캉과 마르크스, 헤겔을 접목한 독보적인 철학과 함께 ‘알프레드 히치콕 연구는 지젝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평’을 받는 영화 저술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강연을 맡은 이택광 교수는 “출간되자마자 거의 모든 책이 몇 달 만에 한국어로 번역되는 철학자는 지젝이 유일할 것”이라며 “이런 인기로 지젝도 놀라워하고 은퇴하면 한국에 살고 싶다”는 말도 한다고 말했다.

“저항과 전통의 도시,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는 오래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다”는 지젝의 강연과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지젝은 오늘날 자본주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영향력은 강하지만 할리우드 영화에서까지도 ‘지금의 자본주의로는 읽힌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등 마르크스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심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지젝은 자본주의하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너무 강력해져 자연의 리듬조차 파괴해 버리고 생태계를 붕괴시키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진 무력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연 재앙과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트럼프처럼 그냥 무시하는 것, 과학기술이 해결책이라 믿는 것, 세금을 내면 시장이 해결해준다는 것, 과거에 대한 가짜 노스텔지어 등으로 분석했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흔한 모습이다. 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나는 무일 했나고 다그친다. 너는 분리수거를 해놔야 물으며 개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신이 빠지게한다.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게 스타벅스다. 매장에 아프리카 아이를 찍은 인도적 포스터를 걸어둔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을 좀 올려 당신이 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으니 당신들은 하던대로 하면되고 암시한다.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이게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라고 말한다.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노예화하는 방식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면의 분노, 뇌나 신체까지도 통제당한다고 말한다.

“이미 군대에서는 뇌의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인간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거다.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를 이미 해석하고



21일 광주비엔날레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GB토크에 참석한 슬라보예 지젝이 ‘21세기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읽는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한국 등 난민 수용 때 발생할 문제 논의 회피 말아야 ‘내 공동체 내 나라’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자세 필요

있는데 이 상황에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슬프게도 ‘내 자유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학 발전에 따라 무엇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이런 건 사적인 영역이 되어서 안된다. 국가가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하고, 연구할 지 함께 결정해야한다. 우리를 낚아치기 기록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누가 통제하는지 알아야한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누가 장악하고 통제하는 지 아는 것도 중요한 투쟁의 영역이다.”

지젝은 서유럽에서 세를 얻는 건 인종차별주의 포퓰리즘이고, 트럼프를 과소평가하고 명칭이라고 비웃지만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걸 놓치지 않고 정책을 제안했던 건 고매한 좌파 엘리트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레닌이 젊은이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라’ 현재 우리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고 행동을 하기 전 생각해야할 상황이 다. 정치적 발전이 이뤄지는 순간은 무엇인가를 ‘요구’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인식했던 상황이 부당하다고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가 다 올바른 건 아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지’ 물어야한다. 특정한 문제를 너무 잘 분석해서 쉬운 해결책을 내려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늘 의심해야한다. 미투 운동은 수천년 가부장적 사고에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는 또 국가들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처럼 인계점에 다다른 엄청난 규모의 환경 재앙은 단일 국가가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내 공동체 내 나라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젝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유럽의 경우 난민 문제에 있어 반인민주의 국수주의와 느슨하게 생각하는 좌파들이 있다. 난민들을 수용해야하지만 아주 특정하게 잘 조절된 조건에서 받아들여야하고 그럴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회피하면 안된다. 각나라가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 좌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예측가능한 문제를 언급만해도 네오파시스트로 몰아부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내 문화방식을 지키고 싶다는 게 꼭 파시즘적인 건 아니다. 모든 공동체는 자기 문화를 지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다. 난민들의 상황도 다르다. 왜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예멘의 끔찍한 내전이 이란, 이라크, 미국, 러시아 등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한다.”

자신을 ‘구식 모더니즘주의자’라고 말한 지젝은 비엔날레 등 거대 미술행사는 더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포즈를 취할수록 자본주의에 편입된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상업적 영역으로서 이미 큰 규모로 성장한 비디오 산업이 사람들의 주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문화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있다고 말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가 모든 갈등이나 문제를 푸는 모든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만큼 현재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을 본적이 없다. 그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지금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 혼돈의 세상은 오히려 많은 변화를 일으킬 엄청난 기회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잃지 말아야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아트 바캉스 백화점 속 ‘산수유람’ 전

8월20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노동식 작가  
숨 설치작품 전시



▶ ‘산수유람’

아트 바캉스 백화점 속 ‘산수유람’전이 오는 8월20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숨’을 이용해 동화적 상상력을 다양한 설치작품으로 표현하는 노동식 작가의 작품이 갤러리 공간을 가득 채웠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휴가시즌을 맞아 작가는 우리를 시원한 산과 물이 있는 상상의 나라로 안내한다. 구름 위로 쪽쪽 뿜은 산봉우리, 봉우리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폭포수, 푸른 하늘을 가르며 공중공역을 펼치는 비행기, 케이블카를 타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작가의 손으로 하나하나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한 폭의 산수풍경은 우리가 한번쯤 다녀왔거나 꿈꿔왔던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시는 아련한 추억과 기억을 상기시켜 잃어버린 감수성을 다시 불러 일으켜 준다. 숨들집 아틀

로 태어나 보고 느꼈던 기억,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숨을 하나의 놀이도구로 갖고 놀던 추억, 이처럼 오랜 시간 축적된 삶에 대한 기억과 추억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동화적이고 이상적인 상상의 나라로 재탄생 됐다. 건조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긍정적인 현실을 지향하는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숨’이라는 재료는 작가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수단이었을 터다. 거대한 산수풍경의 설치작품 속에서 꼼꼼하게 표현된 재미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즐거움도 있다.

경원대 환경조각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개인전 10회 및 국내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루이까또즈, 포스코센터 인턴 등 다수의 기관과 아트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문의 062-360-163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대병원 서기문 초대전

내달 5일까지 CNUH 갤러리



▶ ‘아름다우면서도 강인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서양화가 서기문 작가의 초대전을 병원 1동 CNUH 갤러리에서 내달 5일까지 개최한다.

“나를 위한 위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풀림·난 등 꽃과 캐리커 인물화를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서기문은 “무엇이 위로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아름답고 고귀한 것과 자기 자신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작품에 담았다.

무엇보다 아름다우면서도 강인한 것이 전달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서기문은 눈 덮힌 툄립과 실란 등을 표현했으며, 특히 작품 중 ‘아름다우면서도 강인한 3(65.2X50cm)’은 마치 한 장의 사진을 연상케 한다.

또 서기문은 본질적인 위로는 자기자신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로 자신을 대상화하거나 인물을 캐리커화 한 작품도 소개하고 있다.

전남대 미술교육과 대학원을 졸업한 서기문은 개인전 22회·단체전 수 십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수채화공모전 대상·동아일 보신춘문예 미술평론에 당선됐다.

미학미술사학 박사로 현재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매달 유명작가의 작품 전시회와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7월말·8월초 정상 영업합니다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다  
1등 맛집 연성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